

'포천시청의 날'...개인전 3개 부문 결승행

고은별, 여자단식 4강서 백수민 제압
女복식 결승전은 포천시청팀 맞대결
이정현, 여자·혼합 복식 2관왕 도전

차운속 감독이 이끄는 포천시청이 '2019 회장기 전국대학실업 배드민턴 연맹전' 개인전 3관왕에 도전한다.
포천시청은 11일 전남 구례군 구례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7일째 개인전 준결승에서 여자복식, 여자단식, 혼합복식 3개 부문에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여자단식에서는 고은별이 시흥시청 백수민에게 1세트와 2세트 모두 치열한 듀스 접전 끝에 2-0으로 승리하고 결승에 올랐다. 1세트와 2세트 모두 점수는 23-21이었다. 12일 열리는 고은별의 결승전 상대는 영동군청 유소진으로 준결승에서 화성시청 노다연을 2-0(21-16 21-17)으로 꺾고 결승에 합류했다.
여자복식 결승은 포천시청 팀간의 맞대결이 확정됐다. 포천시청 이정현-김민지는 영동군청 정효진-김유정과 4강전에서 2-0(21-18 21-10)으로 이겼다. 이어 박소영과 윤태경이 역시 영동군청 팀인 이승희-채현희를 2-0(21-12 21-15)으로 따돌리고 소속팀 동료와 결승을 치르



게 됐다.
복식에서 결승진출을 확정된 이정현은 수원시청 김영혁과 손잡은 혼합복식에서도 우승에 도전한다. 김영혁-이정현은 혼합복식 4강전에서 한요셉(중주시청)-이승희(영동군청) 조에 2-1(13-21 27-25 21-18)로 역전승을 거뒀다. 2세트는 최종 스코어가 27점일 정도로 대접전이었다. 앞서 여자복식 결승을 확정된 박소영과 윤태경도 혼합복식 4강전에서 각각 김정호(당진시청), 김영선(수원시청)과 조를 이뤄 맞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박소영-김정호의 2-1(21-17 19-21 21-16) 승리였다.
남자복식은 유연성-김영혁(수원시청), 이상원-한요셉(중주시청)이 결승에 올라 패권을 다투게 됐다. 김영혁은 혼합복식과 함께 2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단식은 한기훈(광명시청)과 김용현(당진시청)이 우승을 다툰다.
구례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포천시청 이정현(앞)이 11일 전남 구례군 구례체육관에서 펼쳐진 '2019 회장기 전국대학실업 배드민턴 연맹전' 혼합복식 4강전에서 영동군청 정효진-김유정 조를 맞아 리시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현의 복식 짝인 김영혁(오른쪽). 김영혁-이정현 조는 결승에 진출했다.
구례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창원 LG, KBL D리그 SK전 승리

창원 LG는 11일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KBL D리그(2군)에서 서울 SK에 90-86으로 승리했다. LG는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영입한 센터 박정현이 32분20초간 뛰면서 14점·14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 중인 김시래는 17점·4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뒤이어 펼쳐진 경기에서는 국군체육부대(상무)가 인천 전자랜드에 94-73의 승리를 거뒀다.

한국, 쇼트트랙 남자 5000m 공동 1위

황대헌, 김동욱(이상 스포츠토토), 이준서(한국체대), 박인욱(대전일반)으로 이뤄진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19~2020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6분55초968을 기록하며 헝가리와 공동 1위에 올랐다. 러시아, 헝가리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던 한국은 마지막 주자인 황대헌이 결승선 앞에서 원발을 쏘 내밀며 헝가리의 마지막 주자 산도르 류 사울린과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1000분의 1초까지 기록이 같았던 두 팀은 사진 판독까지 거친 끝에 공동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 펜싱 플뢰레 단체전 준우승

허준(광주시청), 이광현(화성시청), 권영호, 손영기(이상 대전도시공사)로 구성된 한국 남자 펜싱 플뢰레 대표팀이 독일 본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미국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8강에서 세계랭킹 3위 프랑스(45-29), 4강에서 이탈리아(45-37)를 꺾은 한국은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인 미국에 31-45로 패했다.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세계랭킹 5위가 된 한국은 아시아지역 최고 순위를 유지했다.

SK·KCC 선두권 이끄는 '토종가드의 힘'

김선형·이정현 평균 14점 이상 기록
외인 신장제한 폐지 이후 중요성 UP

'국내선수가 살아야 리그가 산다'. 프로농구의 오랜 숙원이자 과제다. 그간 프로농구는 외국인선수가 팀의 중심이고 해결사였다. 국내선수 전력에 좋지 않아도 외국인 2명을 잘 뽑으면 상위권을 노릴 수 있었다.
올 시즌은 다르다.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는 국내선수가 주인공이

그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토종 가드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186cm이상의 외국인 가드들이 많은 볼 소유를 가져갔다. 외국인 2명이 동시 출전한 쿼터에서는 이들끼리 볼을 주고받는 공격이 대부분이었다. 외국인 신장제한 폐지로 단신 외국인 가드가 확 줄어 들었고 이들의 몫은 고스란히 토종 가드들에게 돌아갔다. 올 시즌에는 승부처에서도 토종 가드들이 볼을 잡고 해결사로 나서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9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KT와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경기(108-105 현



대모비스 승에서는 허훈(KT)과 이대성(당시 현대모비스) 간의 해결사 맞대결이 펼쳐져 명승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날 허훈은 28점·9어시스트, 이대성은 30점·1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또한 10일 서울 SK와 전주 KCC의 경기(79-74 SK승)에서는 김선형(SK)과 이정현(KCC)이 매치업을 이루면

서 농구 팬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SK의 김선형은 "국내선수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승부처에서도 우리(토종가드)가 공격에 나서고 있다. 책임감도 느낀다. 그만큼 우리도 더 노력해서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토종 가드의 활약은 성적과도 연관이 있다. 1위 SK(김선형·평균 14.8점), 공동 2위 전자랜드(김남현·평균 14.0점), KCC(이정현·평균 15.5점)는 모두 평균 10점 이상을 기록 중인 가드를 보유하고 있다. 토종 가드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지한 KCC는 11일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현대모비스로부터 이대성(평균 13.5점)까지 영입,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생활체육 확산 앞장서는 두 지자체

광명시, 평화마라톤으로 '남북통일' 함께 뛰다

직접 뛰 박승원 시장 '광명역 평화철도' 기원
종목별 대회 지원...생활체육 저변 확대 앞장

전국 최대 규모의 KTX 광명역이 '남북평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남북평화의 광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KTX 광명역을 기반으로 한반도 중단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이라는 위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 6월 2일에 열린 남북평화를 기원하는 마라톤대회는 그 비전의 예고편 중 하나다.
이날 참가자들은 광명시의 대표적 자원인 광명역을 출발해 광명동굴, 광명경륜장에 이르는 구간을 5km, 10km 하프코스 선별해 달렸다. 마라톤 코스를 질주하며 광명의 현재를 생생하게 바라보는 한편 광명이 꿈꾸는 내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평화마라톤대회에는 지난해 대회보다 700여 명이 증가한 4527명이 참가해 전국적 대회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었음을 입증했다.
광명시가 이처럼 위대한 비전을 품게 되기까지는 박승원 시장의 남다른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직접 대회에 참가해 5km 코스를 완주한 박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남북평화와 평화통일의 뜨거운 합성을 외치며 2019 KTX 광명역 마라톤대회의 정신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앞서 광명시는 5월 14일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고 남북 평화와 KTX 광명역의 남북평화 철도 출발역 지정을 기원하는 KTX 광명역~도라산역 열차기행을 개최했다. 박승원 시장은 KTX 광명역에서 통일의 복을 힘차게 울리며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대하는 한편 KTX 광명역에서 통일열차를 타고 도라산까지는 2시간 동안 열차 6칸의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KTX 광명역 지정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다. 이날 행사의 압권은 평화공원에서의 걷기행사였다. 10대부터 70대까지 총 272명의 참가자들은 평화공원을 걸으며 남북평화와 한반도평화철도의 개통을 염원했다.
평화마라톤대회에서 직접 코스를 달린 박승원 시장은 생활체육 애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생활체육에 대한 박시장의 관심과 애정은 광명시의 생활체육,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광명시는 초·중·고 운동부(18개교, 24개 사업)를 지원해 학생운동부의 체계적인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체육진흥을 위해 광명시 직장운동경기부 검토 및 배드민턴 선수단이 학교운동부와 연계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전문체육 육성체계를 다지고 있다.
광명시 38개 종목별 단체의 지역·전국단위 대회 출전과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생활체육 강자' 송파구, 체육특화도시로 자리매김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추진
한성백제마라톤 부활·국제경기대회도 인기장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체육사업 추진, 대규모 대회 개최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팀 적극지원을 통한 우수 인재 발굴, 둘레길 조성 and 시설개선으로 생활체육 일
상화.
'전국 생활체육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 일들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주 무대였던 송파구는 이러한 노력들을 쉼 없이 쌓으면서 대한민국 대표 체육도시, 체육특화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송파구에게 더욱 특별한 한 해였다. 송파구는 7월 2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대학교와 생애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육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올림픽공원 내에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송파구는 체육관련 특화도시의 특성을 살려 스포츠 분야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및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민들이 선호하는 핫플레이스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올림픽기념관을 스포츠 특화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9월 22일에는 매년 수십 만 명이 찾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앞두고 제6회 한성백제마라톤대회를 3년 만에 부활시켰다. 올림픽공원~아산병원~광나루사건거공원~고덕천교에 이르는 구간을 달려 참가자들은 송파구의 아름다운 물결과 푸른 녹음을 만끽할 수 있었다. 10월 26·27일에는 4000여 명이 참가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걷기대회인 제25회 한국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송파구는 직장운동부와 구립체육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송파구 조정선수단은 2010년 전국체전부터 시작해 금메달 10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여성축구단도 지난해 대통령기 축구대회 2연패 달성을 비롯해 창단 이래 43회 우승의 성과를 거뒀다.
송파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시민을 매력시키고 있는 송파 둘레길은 송파구가 민선 7기 핵심사업으로 조성한 명소이다. 송파구 외곽을 흐르는 한강, 성내천, 잠지천, 탄천 4개의 하천을 하나로 잇는 총 21.2km의 순환형 둘레길이며 코스별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에어로빅, 걷기교실 등 생활체육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만도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라켓볼장, 다목적 경기장, 풋살구장 등 관내에 16곳의 체육시설을 개설했다.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